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s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발행인: 김경호 편집인: 문혜성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44 호 < 2015. 06 >

의학전문대학원 소식

◎ 의예과 학장님과 함께하는 피자데이

‘학장님과 함께하는 피자 데이’가 4월 9일(목) 종합과학관D동 DB101호 의예과 강의실에서 김경호 의과대학장, 서주영 교무부장, 임원정 학생부장, 권복규 의예과장, 김정아 교수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수님들의 격려 말씀과 학교생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자유롭게 피자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015년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2015년 4월 10일(금) 감옥길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이트코트 세레모니(White Coat Ceremony)가 개최되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병원에서 예비의사로 첫발을 내딛기에 앞서 ‘White Coat Ceremony’를 통해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이순남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김경호 의전원장, 양명수 교목실장, 유권 목동병원장, 오혜숙 동창회장, 정성민 전임 학장 외 각 보직교수님들 및 교실 주임교수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다.



◎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



2015학년도 1학기 김병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월 17일(수) 의학관 A동 의전원장실에서 열렸다. 김경호 의학전문대학원장, 임원정 학생부원장, 정희경 학생처장, 김정아 의예과 특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병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이혜선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김병순 후원자는 매 학기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전원생들을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 졸업 30주년·5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화의대 졸업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5월 11일(월) 오후 7시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34기 의과대학동창, 교수 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흥기숙 교수의 기도로 시작하여 김경호 의전원장 축사, 이



순남 의무부총장 인사말씀, 오혜숙 동창회장 인사말씀, 30주년 동창 박선자 대표 말씀, 정미경 올해의 이화인 대표 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서 30주년 동창 분들을 위해 이화의대 바람막이를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전달해드렸으며, 의학전문대학원 이화 의전원합창동아리(COEM)의 축하 연주 순서도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34회 동교회 장학금 3,100만원을 모교에 기증하였다.

또한 5월 22일(금)에는 신촌 본교에서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있었다. 안정자 명예교수의 기도로 시작한 이 모임에서는 김경호 의전원장 축사, 이순남 의무부총장 인사말씀, 오혜숙 동창회장 인사말씀, 14기 동문소개가 차례로 이어지며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기념 촬영을 마친 후에는 이화역사관 등을 투어 하였다.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동창들은 “밝은 모습으로 교정을 누비는 후배들을 보며 대학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고, 옛 모습을 간직한 교정과 ECC와 같은 현대적 시설의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 여전히 건재한 이화의 졸업생이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4회 동기 모임은 장학금으로 1천만 원을 기증하였다.



◎ 어린이 환경보건출생코호트 현판식



예방의학교실 하은희 교수가 이끄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지원 센터가 29일 이화여대 의학관 A동 1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사업에 선정된 하은희 교수팀은 전국 주요 13개 병원에 설치된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모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생체 및 환경 시료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빅데이터와 연계해 임신과 출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관련된 환경 요인 39가지의 인과관계 가설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하은희 센터장, 이순남 의무부총장, 김경호 의전원장, 유권 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과장과 최경희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등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의대 창립 70주년 소식

이화의대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2015년 9월 4일(금)~5일(토)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9월 4일 행사로는 ‘이화의학교육: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의학교육학 및 학생 학술대회가 진행되며, 의대 심포지엄으로 ‘이화에서의 의학연구의 비전 - 현재와 미래’가 열려 다양한 연자들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9월 5일 행사로는 제3차 동경여의대-이화의대 공동 심포지엄이 ‘Hot Topics in Rheumatology’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며, 마지막 식순으로 동창행사인 ‘의과대학 70주년 기념 동창의 밤’이 열릴 예정이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소/식]

* 2015년 이화 의전원 체육대회



2015년 5월 30일(토)에 서울 한광고등학교에서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체육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본과 1, 2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과 1학년 학생들도 참여하여 학년 간 교류의 의미가 커진 자리였다.

체육대회 당일,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져 예정보다 일정이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삼삼오오 모이는 학생들의 표정은 우려와 달리 설렘으로 가득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뉜 학생들 모두가 운동장 한 가운데에 나와 체조를 하며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판 뒤집기 게임을 첫 종목으로, 풍선 채우기, 풍선 터트리기, 발야구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풍선을 터트리며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듯 즐거워 보였고, 해설과 함께 한 발야구 경기는 점수 한 점, 아웃카운트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되며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각 팀별 응원전도 뜨거웠으며 학생들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이후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노래 맞추기 게임을 진행하였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학생들은 감추고 있던 끼를 발산하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유쾌한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후 일정은 팔씨름 개인전으로 시작하였고,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로 마무리 된 체육대회는 백팀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의전원장 김경호 교수, 의예과장 권복규 교수, 학생부원장 임원정 교수, 학생부차장 정희경 교수 그리고 의예과 김정아 교수께서 방문해 주시고, 응원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격려해주셨다.

답답한 건물 안에서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체육대회라는 야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선후배가 다 함께 웃고 즐기며, 학생들의 열정이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여 더욱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었다.

[교/수/소/식/및/퇴/임/사]

2015년 8월 31일자로 소아과학교실 이승주교수, 신경과학교실 김성학교수, 비뇨기과학교실 박영요교수, 진단검사의학과교실 정화순교수, 치과교실 김명래 교수가 정년퇴임을 합니다.

* 이승주 교수(소아과학교실) - 퇴임을 자축하면서



이제, 이화에서 주신 소아과학 교수로서의 임무를 끝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마다 많은 고민을 하며 진로를 정하였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을 지원하였고 아이들이 좋아 소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보람되다고 생각되어 교직의 길로 들어서면서 소아신장학을 택하였는데 돌아켜 보니 모두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후회는 없습니다.

소아과 교수로서 이화에서의 지내온 긴 세월(35년) 동안 학교와 학회의 일원으로 이화의 명예에 걸 맞는 역할을 했는지, 제자에게는 모범이 되었는지, 소아과 의사로서 충실하였는지 등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였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항상 미흡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지내온 세월임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만족스런 마무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끝내야 하는 심란함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한편 쫓기듯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던지 이제 그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되어 디딤돌의 역할을 하리라는 초창기의 거창한 의도와는 달리 제자들의 앞길과 학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지만 저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훌륭한 소아과 후배 교수들이 있기에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화에 재직하는 동안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다시 되돌아가도 더 훌륭한 삶을 살 자신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소아과학교실은 더욱 더 정진하여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이화의료원은 마곡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더 높이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세월 이화와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전해 봅니다.

먼 길을 씀 없이 걷고 또 달려 왔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도 하였고 마라톤도 뛰어 보았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도 했고, 험난한 들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유로움 속에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나누면서 남은 길을 한가로이 그리고 천천히 걸어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학 교수(신경외과학교실) - 의사의 길을 걸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하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던 내가 의과대학을 입학했을 때, 마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들떠 있었다. 의대공부가 너무 좋아 모든 과목의 성적이 거의 상위권에 있었지만, 신경외과를 선택한 계기는 본과 1년 2학기 때 CNS 시험에서 1등(당시 서울의대 1등과 동점)이라는 담당교수님(당시 서울대 교수로 본교에서 강의 하셨음)의 말씀에 나의 진로는 일찍 결정됐다. 본과 3년에 미국의사국가고시(ECFMG)를 통과했고, 본과 4학년 때는 한국의사고시(KMA) 1등을 꿈꾸며 남들보다 조금은 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레지던트 시절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벌어진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유난히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았던 신경외과 환자들 속에 빈번히 밤을 새우면서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10대 후반의 여자 환자가 교통사고 후 혼수상

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차례의 심폐 소생술 후에도 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장까지 멈춰 심장 내 epinephrine 주사까지 놓으며 마음속으로 신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환자는 점차 소생하여 수개월 동안의 중환자실과 병실생활을 거친 후 아무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다. 1년 반 정도 흘러 그녀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져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래에 방문한 그녀는 고마움의 말과 함께 곧 시집을 가는데 목에 있는 기관지 절개술 흉터를 성형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신께 고마움을 강하게 느꼈으며 그 이후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신께 간절히 환자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하곤 했다.

이화여대 전임강사로 발령 받은 이후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바친 직장을 이제 떠난다니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대병원에 처음으로 뇌졸중센터를 만들 때의 설렘과 불타오르던 의욕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곤 한다. 때로는 환자와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도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환자의 회복에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수많은 나날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날 때마다 나는 조금씩 발전해 나갔던 것 같다. 신경외과장과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수 각자의 전공분야를 살려 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동대문 병원 내의 최고의 과로 발돋움 시켰을 때의 뿌듯함과 성취감은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 원동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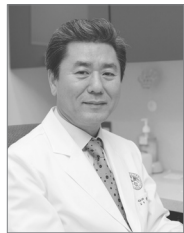
퇴직 전, 의대 보직자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병원 경영은 짧은 내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의 발전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한 그 병원은 타 병원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역량 있는 교수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 개발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교수들을 함께 어우르는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에 발을 들어 놓을 때부터 이대의 가족인 이대인으로서 자신의 발전보다 과의 발전과 병원의 발전을 우선 생각하는 일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병원 경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사명감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환자를 가족이라 생각하며 환자를 위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때론 자기 자신의 희생도 감수해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환자와 큰 문제없이 잘 지내 온 나로서는 신께 감사드리며 퇴임 후에도 기회와 건강이 허락된다면 봉사하고 그간 하고 싶었던 일 등 보람찬 일들을 하고 싶다. 이제 지난 삶에 대한 마무리를 하며 그간 고마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박영요 교수(비뇨기과학교실) -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우선 제가 이화의료원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이화에 온 것이 1985년 3월이니 30년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어느 분은 정년퇴임이란 이제부터 인생의 3막을 시작하는 것이라 말하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달리기

위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RETIRE라 부른다면, 65년을 줄 곳 달리다니 역시 타이어가 많이 닳긴 닳은 모양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첫 30년은 이화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었고, 그 후 30여년이 내 천직인 비뇨기과 의사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와 생각 합니다. 이제 남은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내 삶을 후회 없이 마칠 수 있을까는 좀 더 깊게 정리를 해보아야겠습니다.

1988년 38살의 젊은 나이에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을 맡으며 그 당시 꿈에 그리던 제2부속병원, (현)목동병원, 건립의 실무책임자를 맡아 추진함을 시작으로, 개원하여 안정화 될 때까지 10년간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다가 그 후 3년은 목동병원 병원장을 맡아, 합하면 13년이라는 긴 시간 세월을 병원 행정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큰 대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교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 때문이라 믿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행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나의 천직인 환자 진료에 소홀치 않아 남들이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방광암 분야에 열심히 매달렸고, 이젠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가 방광암 치료에서 국내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20여 년 전 방광암 환자에서 방광 적출 후 자연배뇨형 인공방광 조형술을 시작할 때, 행정 하느라 외국에 가서 남의 수술을 볼 기회도 없이 오로지 저널을 보면서 혼자 터득하여, 수술 시간이 12시간이나 걸렸고 입원 기간도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젠 4-5시간에 2주 입원이라는 놀라운 술기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개발 초기엔 너무 힘들어 수술 후 이틀간은 공공 앓으며 지내기 일 수였습니다.

이 수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죽 주머니 차지 않으려는 방광암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고, 수술 후 정상인과 똑같이 배뇨하는 것에 만족해하고, 매우 고마워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과 이 분야 선택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어 이루어 놓은 이 수술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기도 하나, 남아있는 교수들이 더 잘하는 걸 보며 위안을 삼아야겠지요. 이렇게 방광암만을 열심히 진료하여 명예에 두 번이나 선정 방영되었고 목동병원 최고 책임자로서 일도 해보았으니, 인생 2막에 만족 할 법도 한데 그래도 아쉬워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욕심이라 생각하고, 다음 제 3막에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에 봉사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정년퇴임을 맞을까 합니다.

이화의료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두 손 모아 빕니다.

* 정화순 교수(진단검사의학과학교실) - 정년을 맞이하여



정년을 바로 앞두고 보니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 왔나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입학했을 때, 처음 교수로 임용됐을 때, 그리고 전공의 시절 포함 20년을 보낸 한양대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동지를 옮겼을 때가 떠오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게 되니 큰 일을 마무리 한 듯하여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충만합니다

교수로서 첫발을 내딛고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무엇부터 해나가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당시 병리과에서 분리되어 임상병리학(현 진단검사의학)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되신 김기홍 교수와 박승함 교수의 큰 그늘아래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검사자침서를 새로 만들고, 가능한 한 전문의 판독소견서(단백전기영동, 지단백전기영동, LD, CK 전기영동, 치료약물농도감시(TDM) 등등)를 만들어 보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판독보고서가 과연 임상에 도움이 될까 걱정하였는데, 보

고서에 임상 의사들이 밑줄까지 치며 볼 때 보람을 느꼈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전문으로서 역할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고

전문의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개척의 어려움을 알기에 제자들에게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1993년 9월 이대목동병원 개원과 함께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리더(과장)로서 준비가 안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잘 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사고만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과식구들과 함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두 성실하고 나를 믿고 열심히 해주었기에 대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리더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행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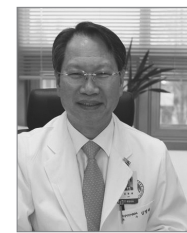
2002년 8월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 학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이 결정되어 있어 이에 대비한 준비가 우선이었습니다. 교육목표 재설정,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OSCE(객관화 구조화 임상시험), PBL(문제중심 학습)의 확대실습 및 CPX(임상수행평가)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전원으로의 전환은 이화여대의 재도약의 기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시설확충이 급선무였습니다. 총장님과 학교재단에서도 더 염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첨단강의실, 실험실, 자율학습실, PBL실, OSCE실 등등 학생을 위한 제반시설, 연구 실험 공간, 교수연구실 등등 3천여 평의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21세기 의학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하여 수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워크숍에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가장 뿌듯했던 일로 기억됩니다. 임기 중 예상치 않은 크고 작은 일에 직면했을 때 지혜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리더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모으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많은 지혜로운 교수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07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회장시절 이대 진단검사의학과 후배, 제자들이 화합하여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학회장이 된 것도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이화인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는 우리과의 홍기숙 교수님, 이미애 교수님, 허정원 교수님 모두 성실하시고 모범적이고 서로 배려하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며 후배들이지만 든든하고 버팀목이 되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혜선 교수님 처음에는 서로 어설퍼지만 지금은 다른 교수님과 많이 닮아감이 느껴집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와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필름처럼 떠오릅니다. 제자들과 의국에서 허물없이 이야기하던 때가 벌써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훌륭한 신 부모님, 따뜻하고 정이 많은 우리 가족(형제자매)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 김명래 교수(치과학교실) - 세계로 나아가자, 열정과 감사의 삶으로



이화에 재직할 지 39년 6개월, 교원으로서 34년을 보냈으니, 이 이화에 재직할 지 39년 6개월, 교원으로서 34년을 보냈으니, 이 화에서의 삶이 곧 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것이 변화를 갈구하게 하였고, 충실하게 진료에 임하면서 “두드러면” 열렸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았고 주어진 결과가 미흡할 지라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30여년이 지나면서, 가장 작은 과에서 전문의를 길러내고 석박사를 배출하는 중견 교실로 성장하였고, 치과 의사의 졸업 후 교육과 의사를 위한 치과학 교육에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의대병원 치과의 모델이 되었고 전공을 달리하는 임상교수들이 협진과 상생으로 대학병원 치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디긴 했지만 이 변화를 이끈 것은 환자에 대한 애정과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경영자의 전폭적인 신뢰와 격려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불만 보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재충전의 에너지가 되어 다시 열정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주임교수와 과장을 하면서 120 여명의 전문의와 200여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8년간 대학원장을 하면서 여성 치과의사의 졸업 후 전문화 교육에 기틀을 놓은 다음, Harvard와 연계된 국제적인 전문인 교육에 기여하려 하였으나 씨만 뿌리고 싹을 틔우지는 못했습니다. 밀어주셨던 총장께서는 “언젠가 싹이 틀 것”이라고 위로하셨다. 오늘의 이화처럼!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고 도움이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기쁨을 주었고 대학과, 후학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못 다한 일들이 있지만 후학들과 전공을 같이하는 이들이 대를 이어 열정을 가지고 정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전공을 가르쳐 주시고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신 윤종호 은사님, 이화에 접목해주신 이정석 교수님, 어려울 때 마다 격려해주신 박이갑 병원장님, 오늘의 치과진료부로 키워주신 우복희 의무부총장님, 두꺼운 신뢰로 밀어주신 장 상, 신인영 총장님, 세상의 깊이를 알게 해주신 이배용 총장님과 윤균일, 서현숙, 이순남 의료원장님들의 사랑과 격려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화에서 30년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도맡아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받쳐주시고 바톤을 이어 받으신 전윤식 교수님께도 무한한 신뢰를 드리고, 오늘의 이화를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갈 김선종 교수와 재직 선생님들께도 “끈임 없는 변화”를 주문하면서 “열정 속에 감사한 삶”으로 세계로 나아가 교실과 병원, 대학과 사회에 크게 공헌하 시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했던 교직원님들! 제가 까칠하고 힘들게 한 것에 용서와 양해를 구하오며, 이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이웃으로서, 주님의 가호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병원을 위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알/림/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mmusik@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여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